

‘도민인권기본계획’ 집단지성으로 본다

- 9월 10일 도민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 타 시·도 사례 사전학습 등 진행



충남도는 10일 충남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도민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을 갖고 도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인권교육 및 타 시·도 사례 사전 학습에 돌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 충남발전연구원이 참여한 가운데 우주형 도민인권증진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워크숍은 강현수 충남발연 원장의 ‘지역사회의 인권의 의미’에 관한 특강으로 시작됐다. 이어 워크숍은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법제팀장의 ‘인권행정의 제도화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인권특강과 정정길 서울시 인권팀장의 ‘서울시 인권기본계획 수립과정’에 관한 사례발표, 이수철 충남발연 연구원의 ‘충남도민인권의식 실태조사 및 시사점’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이발래 법제팀장은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화 현황과 인권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과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시민사회와의 소통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준수와 기본계획 목표의 적합성과 지역 특수성 고려한 실행가능성을 고려사항으

로 강조했다.

정정길 서울시 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장은 서울시 인권정책의 수립과정과 성격, 기본계획 체계를 살펴본 뒤,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대표사업인 인권약자 인권증진, 인권 친화적 도시환경, 인권도시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차례대로 설명했다. 이수철 충남발연 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도 인권기본계획에 담을 기본원칙으로 ▲도민 삶의 밀착성 ▲기본권 보장의 최적화 ▲지역의 특수성 ▲상호 보완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도민인권기본계획에 담을 세부 설계 내용에 대해 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도 인권기본계획 학술 연구용역을 연내 착수하고, 전문가 자문과 도민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도내 마을 기업 14곳 더 키운다

- 최대 2년간 8000만원까지 지원...
일자리·경제 활성화 기대

충남도는 올해 하반기 마을기업 육성 단체로 추가 14곳(신규 13·재선정 1)을 최종 선정·육성하기로 했다.

도는 하반기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추정사업비 8억60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마을기업을 14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육성한다고 9월 9일 밝혔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최대 2년간 8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기업은 ▲공주시 춤추는

▶▶▶▶▶ 충남 소식

꽃동네 협동조합 등 2곳 ▲보령시 꿈이 익는 먹방마을 등 2곳 ▲아산시 송악동네 사람들 3곳 ▲논산시 안산마을 공동체회사 등 2곳 ▲서천군 해돋이 정보화마을 ▲청양군 (주)동강 ▲홍성군 왕대골 농촌체험마을 ▲예산군 느린 손 ▲태안군 갈두천 협동조합이다.

도는 이와 함께 기존 마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판로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도 마을기업 신청단체 발굴과 교육을 위한 설립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일자리창출 및 안정적인 소득창출에 기여,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그동안 67개의 마을기업을 육성했으며 이번에 신규 13개 기업이 추가되어 총 80개의 마을기업을 운영하게 된다.

새 주소로 바꾸고 경품 받으세요

- 도, 11월 30일까지 '새주소로 바꾸기 캠페인' 실시

충남도는 안전행정부와 함께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새주소로 바꾸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은행이나 카드, 보험회사 등이 보내는 우편물의 수신 주소를 지번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때 각 개인이 일일이 전화해 변경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마련했다.

캠페인 참여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나 KT 주소변경서비스

(www.ktmoving.com)에 접속, 카드사와 은행, 보험사, 쇼핑몰 회사 등에 등록된 자신의 주소를 무료로 변경하면 된다.

변경 신청자는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자동차, LED TV, 온누리 상품권을 경품으로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알기 쉽고 쓰기 쉬운 도로명주소가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만큼, 주소변경 사이트를 이용해 간편하게 주소를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3농혁신 가속·가시화' 하반기에도 온힘

- 1상반기 3농혁신 추진상황 보고회...5대 전략과제별 성과 등 점검



충남도는 8월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3농혁신위원, 시·군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상반기 3농혁신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올 상반기 '3농혁신 가속·가시화' 성과를 살피고, 하반기 추진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보고회는 총괄보고와 TF팀별 추진상황 보고, 시·군별 특화사업 보고,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된 5대 전략과제별 주요 성과를 보면, 친환경고품질 농수축산물 생산은 ▲친환경 농산물 재배 확대 ▲도 대표브랜드 청풍명월 골드 전문 재배단지 조성 ▲환경친화적 자연순환 농업 생산체계 구축 ▲지방정부 최초 '농산물생산정보시스템' 시범 구축 운영 ▲친환경 갯벌참굴 홍콩시장 첫 수출 등 충남 수산 4대 명품화 노력 가속 ▲산채 재배단지 확대 등이 제시됐다.

또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성과로는 ▲생산자 중심 산지유통 활성화 전문조직 출범 및 제도 정비 ▲학교급식센터 4개 시·군 신규 설치계획 확정, 로컬푸드 연계형 학교급식 운영시스템 구축 ▲농어업 6차산업화 전국 시범사업 등을 통한 지역 내 농산물 유통 촉진 및 향토산업 육성 등이 보고됐다.

살기좋은 희망마을 가꾸기는 ▲258개 마을 발전계획 수립 ▲마을마들기 사업 전담 TF팀 설치 도농상생복합 시범단지 추진 등이, 도농교류 활성화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체계적 육성 및 시설보장 지원 관리 ▲유관기관·단체간 융복합 협력사업 발굴·추진 등이, 지역리더 육성은 ▲3농혁신대학 17개 과정 2154명 운영 ▲지역리더 아카데미 운영 ▲전국 최초 전 시·군 귀농지원센터 운영 등이 성과로 보고됐다.

시·군 특화사업으로는 ▲천안시 친환경 인증 농산물 10% 확대 ▲공주시 고맛나루 브랜드쌀 육성을 위한 생산단지 확보 ▲논산시 귀농현장 애로지원단 운영 ▲부여군 우렁이 농법을 통한 친환경 쌀 생산단지 확대 ▲청양군 2020 부지농촌만들기 프로젝트 등이 각각 보고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회의에서 안희정 지사는 “3농혁신은 정책 성격상 단계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민간의 참여와 협력도 필수적

이라고 강조하며 “행정과 민간, 시·군과 유관기관·단체 전문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3농혁신이 보다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발전연구 등 3개 연구기관, “충남문화정책연구포럼” 운영

— 정부의 문화융성 대응, 충남의 문화정책 구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정부의 문화융성정책에 대한 충남도의 문화정책 대응과 방향 모색을 위해 “(가칭)충남문화정책연구포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충남발전연구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등 3개 기관은 9월 11일 충발연 대회의실에서 “충남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명대학교 양현미 교수의 “충남 문화정책의 올바른 방향” 주제발표에 이어 충발연 강현수 원장 진행으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전성환 원장,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김정섭 원장, 청운대학교 최인호 교수, (사)공간문화

▶▶▶ 연구원 소식

센터 최정환 대표, 공주대학교 진종현 교수, 순천향대학교 변재란 교수, 호서대학교 김교빈 교수, 충발연 이성우 사무처장 및 이인배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충발연 강현수 원장은 “연·학·민의 구심점 부족으로 행복한 충남도의 문화정책을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번 포럼활동을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충남의 문화융성과 문화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발연 등은 본 포럼 운영을 위한 실무진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토론회 개최 등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충남도 로컬푸드 인증 ‘미더유 식당’ 상징등 불 밝혀

- 지역 농산물 생산자 정보망 개설 등 홍보활동 강화



9월 2일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강현수, 이하 ‘충발연’)은 올해 충남도 로컬푸드 인증 ‘미더유 식당’ 상징등에 불을 밝혔다.

인증식당을 대표해 제등식을 가진 곳은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퓨전일식 ‘해상공원’. 이 식당은 지난해 예비인증식당으로 지정받은 후 지역 농산물 사용량, 위생, 맛 부분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개선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충발연 부설 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유학열 센터장은 “지난해 처음 시작한 미더유 사업이 지역농산물의 중요성과 소비자 신뢰에 대한 인식을 점차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미더유 인증식당 홍보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확대시키는 한편, 지역 농산물 사용 외식업체의 발굴·참여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충발연은 농어업6차산업화센터 홈페이지(www.cdi6.re.kr)를 통해 지역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접 등록할 수 있는 ‘지역 농산물 생산자 정보망’을 개설했다. 이 시스템은 외식업체, 소비자, 농산물 가공업체 등이 필요한 지역 농산물 정보를 얻어 상호 직거래에 활용토록 제작한 것이다. 향후 미더유 인증식당 확산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시스템 개선과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중부대 강현수 교수, 충남발전연구원장에 취임

충남발전연구원은 8월 1일 중부대 강현수 교수가 제8대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강 원장은 강원도 강릉 출생으로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그리고



영국 옥스포드대·미국 MIT대 객원연구원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공간환경학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아울러 참여정부 시절 인수위원회 자문위원과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강 원장은 취임사에서 “충발연의 새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제 역량을 넘어서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우면서도 그동안 연구원을 훌륭히 키워온 연구원 가족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다.”면서 “앞으로 ‘로컬이 곧 글로벌’이라는 믿음으로 현장 지향적 연구 협력연구 네트워크 강화 정책활용도 높은 연구성과 생산 고객(공무원, 도민 등)과의 원활한 소통 등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충남발전연구, 6차산업화 소식지 ‘농부(農富)’ 전국 최초 창간

충남발전연구원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가 전국 최초로 6차산업화 전문 소식지를 창간했다. 올 7월호부터 계간으로 발간·배포된 소식



지 이름은 ‘농부(農富)’다.

‘농부’는 농어업6차산업화를 통해 농어가의 소득 향상과 더불어 풍요로운 농어촌을 실현

하고픈 희망을 담고 있다.

이번 창간호에는 6차산업화 전략자문단, 충남로컬푸드 외식업체 인정제도 ‘미더유’, 충남전통주 아카데미 등 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사업 소개와 6차산업화에 대한 정보, 그리고 충남지역 6차산업 현장 인터뷰와 다양한 소식 꾸러미 등이 실려 있다.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유학열 센터장은 “앞으로 ‘농부(農富)’는 충남 6차산업화 주체들간의 정보제공 및 공유의 장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6차산업화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에 농어가, 농가공기업, 농어촌마을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충남도 6차산업화 모델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식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6차산업화센터 홈페이지(www.cdi6.re.kr)나 전화 041-840-1207로 문의하면 된다.